

# 여야, 귀국 박대통령에 “결단 내려달라” 압박

## 새누리 “靑회담 성사 백방노력”... 중진들도 “야당대표 만나야”

### 민주당 “朴대통령 민생·대통합 결단하면 진심 다해 협력할 것”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할 시점에 맞춰 여야는 대치 국면 해소를 위한 박 대통령의 결단을 압박했다.

새누리당에서는 중진 의원들이 나섰다.

전날 서울광장에 설치된 민주당 천막당을 방문해 김한길 대표를 만났던 7인의 정몽준 의원과 5인의 이재오 의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김 대표와의 면담에 대해 “제1야당의 대표가 비가 세는 천막에서 기거하는 모습이 좋지 않고 우리 정치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하나 마음이 안타깝다”면서 “여당의 원들이 모두 나서서 야당과의 대화를 적극 중재하고, 청와대로 우리 당에서 설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갈등해결의 제일 큰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꼬인 정국을 풀 생각을 해야 한다”면서 “오늘 대통령이 오시면 먼저 여당 대표를 만나시고, 야당대표도 만나서 사정을 듣고 일단 갈등을 해결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주의와 민생, 대통령이”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갈등해결의 두 번째 책임은 야당에도 있다. 단독국회를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단독국회가 되냐”며 여당의 자성을 촉구했다.

이인제 의원도 “대통령은 넓은 마음으로 허심탄회하게 아무 조건 없이 야당 대표를 만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경환 원내대표는 “막힌 정국을 풀기 위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정치권과 대통령의 회담이 성사될 수 있게 백방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나라 안은 불통·불신·원색 뿐”이라며 국정원 개혁과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민주주의와 민생, 대

합을 위해 대통령이 결단한다면 저부터 진심을 다해 협력할 것”이라며 박

대통령을 압박했다. 그는 다만, 여론에서 대통령의 외국 순방 성과 설명회 형식의 회동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국정원 개혁이 말해지지 않는 어떤 만남도 무의미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의원이 이날 TBS ‘열린아

침 송정에입니다’에 출연, “모든 정국의 해결은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며 “여러 가지 물꼬를 감긴길 대표와 머리를 맞대고 앉아서 풀어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지원 기자 jkpark@kwangju.co.kr



“우편향 교과서 승인취소하라”

유기홍 민주당 의원(오른쪽에서 두번째)과 도종환 민주당 의원(맨 오른쪽)이 11일 서울 중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수요집회에서 ‘우편향’ 논란을 일으킨 교과서 역사교과서의 검정 승인취소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담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 김영록 “日 수산물 검역 허술... 국민건강 무방비”

## 황주홍 “쌀 관세화, 내부적 결정 내린 것 아닌가”

### 국회 농해수위·국토교통위 열려

여야는 11일 농림수산물식품해양위와 국토교통위 2개 상임위 전체회의를 각각 열어 해당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농해수위에서는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논란과 쌀 관세화(전면 수입 개방) 문제 등이 쟁점이 됐다.

◇일본 수산물 방사능 오염=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스트론튬과 플루토늄에 대한 일본수산물 검사 내역은 지난달 23일까지 전혀 없는 반면 축적된 허술한 검역체계로 국민건강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승남 의원은 “수입금지된 저가수 수산물의 방사능 검출 건수는 16건이나 수입금지 대상이 아닌 훗카

이도한 수산물의 경우 67건, 도쿄현 22건에서 각각 방사능이 검출됐다”며 “방사능 검출 건수를 기준으로 수입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쌀 수입 전면 개방=김영록 의원은 “쌀 수입 전면 개방=김영록 의원은 “쌀 관세화는 국내 쌀값이 높게 유지되고 국제쌀 값이 폭락할 경우, 국내 쌀시장은 재앙과 같은 결과를 초래, 식량산업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당 황주홍 의원은 “보고서에 ‘쌀 관세화가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써 있는 것으로 봐 내부적으로는 이미 관세화로 가야한다고 결정 내린 것 아니냐”며 “정부가 어떤 대안을 내놓더라도 농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승남 의원은 “식용곡물 자급률이 45.1%, 전체 곡물 자급률은 24.

6%로 하락하고 쌀 재배면적은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성급한 완전개방은 곡물 자급률을 더욱 떨어뜨릴 수 있으며, 관세화로 전환할 경우 한미FTA와 한중FTA로 인해 관세장벽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관세화 전환→관세인하 압박→관세폐지→생산기반 붕괴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쌀 목표가격 인상=황주홍 의원은 “지난 2005년 쌀 직불금제도가 도입된 후 2012년산 쌀까지 8년 동안 목표가격이 17만83원이었다”며 “그런데 앞으로 5년간 적용될 목표가격이 현재보다 겨우 4000원, 2.4% 인상된 수준으로 같은 기간 물가인상을 26.8%나 생산비 증가분 21.2%를 감안하면 실제로는 목표가격이 하락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반문했다.

박지원 기자 jkpark@kwangju.co.kr

## 교육부 “한국사 교과서 8종 수정·보완”

### ‘우편향’ 논란 교과서 역사교과서 검정 취소는 안해

교육부가 ‘우편향·사실오류’ 논란을 빚은 교과서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비롯해 최근 검정 합격한 한국사 교과서 8종을 이달 말까지 모두 수정·보완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로서는 교과서 한국사 교과서의 검정 취소를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남부 교육부 장관은 11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지난달 30일에 합격 발표한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말까지 수정·보완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국사편찬위원회와 공동으로 교과서에 대한 심층 분석을 하고 수정·보완의 필요성이 있는 사항은 향후 국사편찬위에서 구성할 전문가 협의회 자료와 출판사와의 협의를 거쳐 10월 말까지 수정·보완을 완료하겠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전했다.

다음달 11일까지 예정된 일선 교과서 선택 시기는 “한국사에 한해서 11월 말까지 연기해 수정·보완된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 공급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그는 말했다.

아울러 “검정 심사기간 확대 및 검정 심의위원 보강 등 ‘교과서 검정심사 제도 개선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요구하는 교과서 한국사 교과서의 검정 취소에 대해서 그는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분명히 밝혔다.

이에 앞서 민주당 ‘역사 교과서 친일독재 미화·왜곡대책위원회’는 이날 서남부 교육부 장관을 향의 방문해 ‘우편향’ 논란과 사실왜곡·오류 문제가 제기된 교과서의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이달 안으로 검정취소 여부를 판단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 정가 라운지

### 우윤근, ‘해양경제특구법 제정’ 공청회 개최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누리당 김무성·서병수·서용호·하태경 의원과 함께 ‘해양경제특구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해양경제 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해 정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열린 토론을 벌였다.

우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가 경제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양경제가 발전을 해야 한다”며 “해양경제



특구를 도입해 항만을 중심으로 플랜트나 조선·관광·물류·운수교통·문화·금융서비스 등 다양한 해양 관련 산업을 묶어서 발전시켜 나간다면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경제발전의 중심축으로서 국민경제와 국가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 박혜자, 방과후 학교·돌봄교실 개선 토론회

민주당 박혜자 의원은 광주광역시교육청·(사)여성가족부와 함께 지난 1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홍원 한국교육개발연구원 방과후학교연구실장은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사교육에 대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



공하고 지도교사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개선과제들을 토대로 향후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의 법적 개선과제를 마련해 입법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기자 jkpark@kwangju.co.kr

### ‘혼외 아들 의혹’ 보도 관련 ‘내연녀’ 지목 임씨

### “채동욱 검찰총장 아들 아니다

### 무시 안받으려 이름 빌려줬다”

조선일보의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아들 의혹’ 보도와 관련해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씨가 조선일보 보도를 전면 부인했다.

10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임씨 편지 사본에 따르면 자신을 “조선일보에서 채 총장이 10여년 간 혼외관계를 유지하면서 11세된 아들을 숨겨온 당사자로 지목된 Y씨며 임모라고 한다”고 소개한 뒤 “제 아이는 현재 검찰총장인 채동욱씨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A4용지 두장 분량의 이 편지 말미에는 임씨 스스로 밝힌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고 지장이 찍혀 있다.

임씨는 편지에서 “생계를 위해 부산에서부터 주점을 운영하다가 서울로 자리를 옮긴 후에도 음식점, 주점 등을 운영한 것은 사실이다”면서 “채동욱씨를 부산에서 손님으로 알게 된 뒤 서울에서 사업을 할 때도 제가 청해 여러번 뵈게 됐다”고 밝혔다. 임씨는 그러나 채 총장과 내연 관계를 맺었거나 채 총장의 아이를 가진 사실은 결단코 없다고 강조했다. 초등학교 학적부에 아버지 이름이 ‘채동욱’으로 기재된 것에 대해서는 그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시받지 않으려는 마음 때문에 이름을 함부로 빌려줬다”고 말했다.

부산에서부터 주점을 운영하다가 서울로 자리를 옮긴 후에도 음식점, 주점 등을 운영한 것은 사실이다”면서 “채동욱씨를 부산에서 손님으로 알게 된 뒤 서울에서 사업을 할 때도 제가 청해 여러번 뵈게 됐다”고 밝혔다.

임씨는 그러나 채 총장과 내연 관계를 맺었거나 채 총장의 아이를 가진 사실은 결단코 없다고 강조했다.

초등학교 학적부에 아버지 이름이 ‘채동욱’으로 기재된 것에 대해서는 그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시받지 않으려는 마음 때문에 이름을 함부로 빌려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2013년 10월 01일

### 용봉동 17-1번지 하미스포렉스가

# 굿모닝메디컬타운으로 새롭게 탄생합니다.

### 문흥, 일곡, 각화, 용봉지구의 전과목 메디컬타운

<b>지상5층</b> 501호 내과 502호 치과	<b>지상6층</b> 601호 안과 602호 이비인후과
<b>지상7층</b> 701호 성형외과 702호 산부인과	<b>지상8층</b> 801호 피부, 비뇨기과 802호 영상의학과
<b>지상9층</b> 901호 한의원 902호 소아, 청소년과	<b>지상10층</b> 1001호 재활의학과 1002호 가정의학과
<b>지상11층</b> 1101호 신경외과 1102호 정신의학과	<b>지상12층</b> 1201호 정형외과 1202호 향문외과

## 시네마(CGV) 계약완료! 골프장 계약완료!

## 락볼링장 계약완료! 수영장 계약완료!

## 1층 브랜드커피숍 계약완료!

## 2층 레스토랑 카페 계약완료!

### 파격적인 임대료 & 분양가

<b>지하1층</b> 음식점(중식, 베트남국수) 306P	<b>지상1층</b> 롯데리아(맥도널드) 70P
<b>지상1층</b> 농협지점,하나로마트 845P	<b>지상2층</b> PC방 203P
<b>지상1층</b> 지상1층 현대폰매장 22P	<b>지상2층</b> 한정식 387P
<b>지상1층</b> 미용실 23P	<b>지상3층</b> 일식 387P
<b>지상1층</b> 베스킨라빈스 44P	<b>지상4층</b> 패밀리레스토랑 387P

**Good Morning Medical Town**  
굿모닝메디컬타운

행복한 부자를 위한 자산관리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임대·분양 문의 : 062)252-0099

**Good Morning Sporenter Town**  
굿모닝스포텐터타운

상업·부동산 임대관리 전문회사  
**유한회사 케릭스**